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4
2025.09.15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IMO, 해운업 넷 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추진
- 2030년 이후 해운업 대체연료 본격 확산 전망
- CBAM 규칙 완화, 소규모 기업 부담 줄이고 대기업은 그대로
- 노르웨이, EU에 CBAM 범위 확대 촉구, 탄소 누출 방지 강조
- CBAM 시행 앞두고 EU·영국 ETS 연계 논의 본격화
- 영국, 저탄소 철강·시멘트·콘크리트 시장 확대 위한 정책 논의
- EU, 2040년 기후 목표 결정 연기
- 세계 배출량 2024년 사상 최대, EU·일본만 감축 성공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IMO, 해운업 넷 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추진

IMO (국제해사기구)가 해운업 전반에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기후 규제 프레임워크 (IMO Net Zero Framework)를 채택하고자 함.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에 따라 구간별로 분류:

- **그린 존 (Green Zone)**: 기준선 (Base Compliance Line)과 직접 준수선 (Direct Compliance Line)을 모두 초과 달성
⇒ 보상: 초과 단위 (SU, Surplus Units) 발급 → 거래·적립 가능
- **블루 존 (Blue Zone)**: 기준선은 충족했으나 직접 준수선에는 미달
⇒ 제재: CO₂e 톤당 100달러 벌금 납부 (2030년까지 적용)
- **레드-오렌지 존 (Red-Orange Zone)**: 기준선조차 미충족
⇒ 제재: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으로부터 SU를 구매하거나, IMO에서 보정 단위(RU, Remedial Units)를 톤당 380달러에 구매

벌금 및 RU 판매 수익은 IMO 넷 제로 펀드로 취합되어 신기술 지원과 공정 전환에 쓰일 예정

다만 단기적으로 값싼 LNG, 바이오연료와 같은 과도기적 연료 의존이 길어질 수 있고, 보상 메커니즘이나 거래 시장이 불안정할 시 민간 투자 유입도 제한적일 위험이 있음.

동 프레임워크는 10월 IMO 회의에서 공식 채택 여부와 세부 규칙이 확정될 예정이며, 첫 보고 연도는 2028년으로 전망



2030년 이후 해운업 대체연료 본격 확산 전망

싱가포르에서 열린 APPEC (Asia Pacific Petroleum Conference) 회의에서 해운업계 경영진들은 2030년 이후 해운업에서 대체 연료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 밝힘.

2030년 전까지는 LNG, 메탄올 등 이미 상용화된 연료 중심으로 배출을 감축하지만, 2030년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녹색 암모니아, 녹색 메탄올, 바이오메탄 등 본격적인 저탄소 연료로 대규모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해운업계는 UN 국제해사기구 (IMO)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저탄소 대체 연료를 모색 중

다만 업계는 탈탄소화를 필수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투자 규모와 시기에 대한 자본 배분이 어렵다는 입장



CBAM 규칙 완화, 소규모 기업 부담 줄이고 대기업은 그대로

유럽의회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를 간소화하는 규칙을 승인

이로 인해 CBAM 적용 부문에서 연간 50톤 미만의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규정 준수에서 면제, 전체 수입업자의 90%가 제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다만, 전체 수입업자의 10%에 해당하는 대형 기업들이 전체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될 전망

CBAM은 2026년부터 전기,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수입품에 적용되며, 유럽위원회는 추후 회피 방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이번 합의는 CBAM을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으로 평가



노르웨이, EU에 CBAM 범위 확대 촉구, 탄소 누출 방지 강조

노르웨이가 EU 집행위에 CBAM 범위를 확대하고 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노르웨이의 알루미늄·페로합금·실리콘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제 경쟁사보다 배출량은 낮지만 생산비가 높음.

반면 값싼 탄소 집약적 원재료로 만든 해외 가공제품은 CBAM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를 피한 채 EU 시장에 저가로 수입이 가능

이에 탄소 감축에 투자한 기업은 불리해지고, 배출을 많이 한 기업이 유리해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노르웨이의 입장

이에 EU에 CBAM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회피 수단을 차단하며, 배출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CBAM 시행 앞두고 EU·영국 ETS 연계 논의 본격화

EU 이사회 의장국 덴마크는 EU와 영국 배출권거래제 (ETS) 연계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자 함.

양측은 지난 5월 기본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가격 격차 축소와 제도 정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은 상태

협상이 지연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로 인해 영국 수출업체와 EU 전력 수입국이 즉각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이 제기

특히 덴마크는 전력 수요의 약 35%, 프랑스는 20%를 영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11월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시 영국이 CBAM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이는 북서유럽 전력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영국, 저탄소 철강·시멘트·콘크리트 시장 확대 위한 정책 논의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DESNZ)가 저탄소 철강·시멘트·콘크리트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의견 수렴을 9월 말까지 연장

동 정책 초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

1. 제품별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보고 체계
2. 철강·시멘트·콘크리트를 배출량 수준에 따라 A~G 등급으로 분류
3. 정부 지침 및 모범 사례를 통해 조달 과정에서 저탄소 제품을 고려하도록 유도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 제품의 환경 가치를 입증하기 쉽게 하고, 구매자들이 비교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영국 산업이 탈탄소 추진 시 값싼 고탄소 수입품에 밀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

영국은 또한 2027년부터 시행될 영국 CBAM과의 정합성을 위해, 이번 초안에서 제안된 제품별 배출량 MRV 체계와 CBAM의 MRV 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라벨·의무 기준 도입 등도 검토 중



EU, 2040년 기후 목표 결정 연기

EU 집행위가 제안한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90% 감축 목표가 회원국 반발에 부딪힘에 따라 9월 환경이사회 표결이 무산됨.

논의는 10월 정상회의로 미뤄졌으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에서 제출해야 할 EU의 새로운 국가별 기후계획 (NDC) 에도 차질이 예상

프랑스는 기후 목표 결정을 장관이 아닌 정상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슬로바키아·헝가리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90% 감축안에 반대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국제 탄소 크레딧의 활용 여부로, EU ETS 와의 충돌 문제와 역외 저장 허용 여부까지 포함돼 논의 중. 이에 대해 EU 내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해외 크레딧을 활용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

EU는 이미 2030년까지 최소 55% 감축 목표를 확정한 상태이며, 이번 2040 목표 설정은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핵심 단계로 여겨짐. 그러나 회원국 간 균열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



세계 배출량 2024년 사상 최대, EU·일본만 감축 성공

EU 배출 연구센터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대비 1.3% 증가한 532억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국, 미국, 인도, EU,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일본이 전체 배출량의 66.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일본(-1.8%)과 EU(-2.8%)만이 배출 총량을 감축함. 반면 중국과 인도는 경제 성장과 함께 배출도 늘어나 EU·일본과 뚜렷한 대조를 보임.

주요 배출국 대부분은 GDP 단위당 배출량(탄소 집약도)을 줄이며 경제 성장과 배출 증가를 어느 정도 분리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중국과 인도는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남.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은 1,300억 톤으로, 현재 수준이 이어질 경우 해당 총량은 3년 만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감축 가속화가 시급한 상황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